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8권 2호 (2015년 6월)



###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수균 · 신현희 · 안정신 · 정영숙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 장혜인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심다혜 · 이승연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 신다원 · 방희정 · 옥 정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 김상미 · 김지연 · 조종열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 김태화 · 김혜리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 주나래 · 최영은 · 조종열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 김민주 · 송현주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배민정 · 정윤경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 김은영 · 송현주

# 한국심리학회지

## 발 달

제 28 권 제 2 호 / 2015. 6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수균 · 신현희 · 안정신 · 정영숙 /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 장혜인 / 19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심다혜 · 이승연 / 41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 신다원 · 방희정 · 옥 정 / 63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 김상미 · 김지연 · 조증열 / 89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 김태화 · 김혜리 / 107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 주나래 · 최영은 · 조증열 / 125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 김민주 · 송현주 / 14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배민정 · 정윤경 / 159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 김은영 · 송현주 / 175

한국발달심리학회

##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 민 정

정 윤 경<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인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맺는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4~7세 아동을 자녀로 둔 32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태도,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자신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을 맺었다. 어머니가 정서표현양가성이 높다고 보고할수록 양육태도는 애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모든 문제행동(외현화, 내재화)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은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완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라는 개인적 정서 특성이 자녀양육 및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유의미한 관련을 맺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태도,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

\* 본 연구는 배민정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E-mail: benijeong@catholic.ac.kr

최근 발달심리학 분야에서는 부모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심을 받으며 이루어져 오고 있다. 가령,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갖고 있는 양육에 대한 신념, 철학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Gottman, Katz, & Hooven, 1996; Dunsmore & Karn, 2001; Cervantes & Seo, 2005; Wong, Mcelwain, & Halberstadt, 2009; 신주혜, 정운경, 2014; 정운경, 박혜진, 2012). 이들은 부모의 잘못된 신념이나 예측은 정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녀의 발달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녀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부모 자신이 명료하게 정서를 경험하고 적응적으로 표현하는 조절 능력이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서 특성으로 밝혀진 정서표현양가성을 중심으로 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이란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정서를 표현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 모두를 포함

하는 개념이다(Emmons & King, 1988). 정서는 본래 표현되고 행동화되려는 경향이 있다(Frijda, 1986). 따라서 일상의 매 순간마다 경험되는 정서를 표현할지 표현하지 않을지에 대한 양가감정을 빈번히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은 개인의 일련의 정서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심리적 작용과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양가성이란 일종의 갈등으로 한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이 동시에 혹은 빠르게 교차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원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Emmons & Kaiser, 1995; 최해연, 2007에서 재인용).

일찍이 Pennebaker(1985)가 정서표현의 부족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표현 부족의 조합이 치명적이라고 설명한 이후, 국내에서는 주로 개인의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을 다루어왔다(이승미, 오경자, 2006;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최해연, 2007; 한정원, 1997). 가령, 정서표현양가성은 부정적 정서, 낮은 긍정적 정서, 우울,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 낮은 자기 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었고(Emmons & King, 1988; King & Emmons, 1990), 교감신경활성화 정도를 측정된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을 중립적 상황에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만성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음을 밝혔다(최해연, 2008).

정서표현양가성은 심리적 건강이라는 개인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Mongrain과 Vette(2003)은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여성은 상대

적으로 덜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며, 긍정적 정서표현이 적은 경향이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의 일치율이 낮음을 밝혔다. 정서표현양가성을 정서인식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표현성 수준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정서인식에 혼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ng, 1998). 국내에서도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 능력, 대인간민감성, 적대감, 이성관계만족도 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누적되고 있다(김준홍, 이영호, 2011; 조현정, 이승연, 2014; 최해연, 민경환, 2007). 특히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감정을 소통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Emmons & Colby, 1995).

한편 정서표현양가성이라는 개인의 성격특질과 고유한 스트레스 반응양식을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낮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지각하지 않는 약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심리적 갈등을 동반한 적극적인 억제 경향을 의미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은 개인의 인지 혹은 동기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10).

그러므로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은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자녀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거나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부모 자신의 고유한 내적 특성과 어려움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보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더 역동적으로 경험되고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정서표현 신념과 목표가 모순될 때 양가감정과 내적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특히 양육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동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정서표현양가성을 부모 역할과 관련한 변인으로 다루어 진행된 연구는 제한적이다(김미라, 강지현, 2012; 오지현,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을 부모 역할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태도란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 Schaefer(1965)가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 애정적-통제적, 거부적-자율적, 거부적-통제적 차원으로 설명한 이후, 최근에는 심리적 통제, 애정 및 지지의 차원으로 설명되고 있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또 양육태도를 일정한 문화양식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 또는 행동의 경향성과 반응성이라고 정의하면서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지는 일정한 정서 강도와 이와 관련된 심리적 경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이유진, 정은정,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이라는 정서적 측면과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정서특성과는 다소 구별되는 일반적인 혹은 보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렇듯 양육태도에 대한 정의와 차원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

만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오고 있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이며 과잉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적 행동과 (Petit, Harrist, Bates, & Dodge, 1991),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학령전기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손소영, 2003)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간에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에 대한 탐색이 의미있겠다.

주지하는 바, 정서발달은 다면적이고 복잡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Thompson & Goodman, 2010). Eisenberg, Cumberland, Spinrad(1998) 등이 정서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제시한 발견적(heuristic) 모델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표현과 같은 정서관련 양육행동은 자녀의 특성, 문화 및 맥락적 요인과 더불어 부모 자신의 다양한 특성(예: 양육 신념과 철학, 정서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실시된 국내 연구에서는 정서가 가치있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성을 보이고,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일지라도 격려하여 자녀의 정서조절과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고, 처벌 혹은 최소화 반응을 적게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신주혜, 정윤경, 2014). 또한 정서코칭(emotion coaching) 철학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정서의 언어적 명칭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정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Eisenberg, Fabes, Murphy, 1996).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렬한 정서적 감정이 빈번히 야기되는 관계(Dunn & Brown, 1991)이기 때문에 부모의 정서관련 특성, 특히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부모자녀 관계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자녀의 건강한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자녀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이라는 적응 지표를 관련지어 살펴보고, 어머니 개인의 정서적 특성인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태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자녀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자신의 양육 행동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가?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자녀의 문제 행동간의 관계를 양육행동이 매개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경기도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학령전기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 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누락된 응답이 있거나 신뢰롭지 못하다고 판단된 32부를 제외하고 총 321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의 자녀는 4~7세 아동으로, 남아가 174명이었고 여아가 147명이

었다.

#### 측정도구

#####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AEQ)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하고, 하정(1997)이 번안한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AEQ는 정서표현 상황에서 여러 목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고, 정서표현, 정서관리, 정서규제, 미묘한 정서의 표현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모호한 감정 혹은 양가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다(예: '사람들에게 사랑/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만 나약하게 보이거나 너무 민감하게 보일까봐 걱정이 된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이 든다'). 척도 제작 시에는 긍정적 정서표현양가성 10문항과 부정적 정서표현양가성 18문항의 두 요인으로 나뉘었으나, 하위 요인 군집간 상관관이 높아 단일구성개념으로 본다는 King과 Emmons(1990)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단일요인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자주 그렇다(5점)'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총 범위는 28~140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양육태도 질문지(PBI)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Parker(1979)가 제작하고 송지영(1992)이 번안한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원래 회고적 기억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문경주, 오경자, 2002; 정윤경, 박보은 2010).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하위 요인으로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포함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애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문항(3,7,8,9,14)이 척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애정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3, 통제의 내적일치도는(Cronbach's  $\alpha$ ) .69,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66이었다.

##### 아동의 문제행동(K-CBCL)

아동의 문제행동은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아동기에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총 19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해당 문제행동 문항들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문항 2(알레르기), 문항 4(친식)의 경우 총 문제행동 점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축, 신체적 증상, 우울/불안 행동을 포함한 내재화 유형과 비행,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유형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문제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분석절차

우선 각 연구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및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태도, 자녀의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양육태도,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태도,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할수록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다(총문제:  $r=.26, p<.01$ , 외현화 문제:  $r=.23, p<.01$ , 내재화 문제:  $r=.24, p<.01$ ).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태도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표 1.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어머니							
1. 정서표현양가성	1						
2. 전반적 양육태도	-.22**	1					
3. 애정적 양육태도	-.13*	.83**	1				
4. 통제적 양육태도	.22**	-.71**	-.19**	1			
아동							
5. 총 문제행동	.26**	-.32**	-.32**	.16**	1		
6. 외현화 문제행동	.23**	-.29**	-.31**	.12*	.91**	1	
7. 내재화 문제행동	.24**	-.30**	-.28**	.17**	.91**	.66**	1
평균	79.24	60.20	35.60	20.41	97.78	49.70	48.07
표준편차	13.73	5.74	4.14	3.23	16.74	9.07	9.33
왜도	.06	.10	-.37	-.23	.23	-.18	.49
첨도	.28	.21	.19	.45	.18	-.15	1.16

\*  $p<.05$ , \*\*  $p<.01$

양육태도가 애정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 $r=-.22, p<.01$ ).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 있어서도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은 모두 적게 나타났다(총 문제:  $r=-.32, p<.01$ , 외현화 문제:  $r=-.29, p<.01$ , 내재화 문제:  $r=-.30, p<.01$ ).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및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을 가장 먼저 투입하고 다음으로 양육태도를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beta=.22, p<0.001$ )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319) = 17.52, p<0.001$ ). 어머니의 양육태도( $\beta=-.25, p<0.001$ )가 투입되었을 때 추가적 설명도 유의

미하였다( $F(2, 318) = 20.23, p<0.001$ ).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는데,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beta=.24, p<0.001$ )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1, 319) = 20.08, p<0.001$ ), 양육태도( $\beta=-.26, p<0.001$ )의 추가적인 설명도 유의하였다( $F(2, 318) = 22.01, p<0.001$ ).

즉, 어머니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하고, 양육태도가 애정적이지 않을수록 자녀는 유형에 상관없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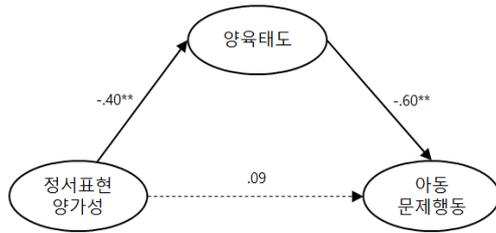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태도와 자녀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매개 모형 검증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경로계수 및 적합도 지수를 그림 1과 표 3에 각각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와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0.90 이상일 때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RMSEA는 0.05 보다 작으면 좋은 모형, 0.08보다 작으면 괜찮은 모형, 0.10

표 2.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 및 양육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투입순서	예측변인	$R^2$	$\Delta R^2$	$\beta$	$t$	$F$
외현화 문제행동	1	정서표현양가성	.05		.22	4.19***	17.52***
	1	정서표현양가성			.17	3.18**	20.23***
	2	양육태도	.11	.06	-.25	-4.67***	
내재화 문제행동	1	정서표현양가성	.06		.24	4.48***	20.08***
	1	정서표현양가성			.18	3.46**	22.01***
	2	양육태도	.12	.06	-.26	-4.75***	

\*\* $p<.01$ , \*\*\* $p<.001$



\*\* $p < .01$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1. 구조모형

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이하나, 2006에서 재인용). 분석 결과,  $\chi^2 = 69.312(df=32, p < .01)$ , TLI=.95, CFI=.96, RMSEA = .06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어머니 정서표현양가성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와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

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95% CI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Bias-corrected 95% CI=.069, .929)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양육태도를 완전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어머니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할수록 애정적이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이고( $\beta = -.40, p < .05$ ), 양육태도가 애정적이지 않을 수록 자녀가 문제행동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0, p < .01$ ).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양육태도와 어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TLI	CFI	RMSEA
구조모형	69.312	32	.95	.96	.06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 정서표현양가성 → 아동 문제행동	.	.23**	.23**
어머니 정서표현양가성 → 양육태도	-.40**	.	-.40**
어머니 양육태도 → 아동 문제행동	-.60**	.	-.60**

\*\* $p < .01$

주) 유의성은 Bootstrapping방법에 의한 결과임.

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으로는 정서표현양가성에 초점을 두었고,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어머니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할수록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 부모-자녀 관계 맥락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와 정서 관련 대화를 더 많이 나누거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일관된다(신주혜, 정윤경; 2014; 정윤경, 박혜진, 2012; Cervantes & Seo, 2005; Dix, 1991; Dunsmore & Karn, 2001).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자신의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한다고 보고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애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양육태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표현을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김미라, 강지현, 2012), 정서표현양가성을 낮게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합리적이며 애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성취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오지현, 2010).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자녀 양육상황에서 자녀에 대해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정서사회화 맥락의 최근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발달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실제 상호작용 상황에서 관찰하였다(신주혜, 2015). 연구 결과 어머니의 정서발달신념 중 일부 신념(긍정정서 가치 신념, 부모지도 신념)이 기존 연구결과와 반대방향의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부정정서가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작용할 수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다양한 특정 정서(긍정 혹은 부정)가 유발되는 상황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와 관련지어 연구되기도 하였는데,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냉담', '통제지배'를 포함한 대인관계 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김준홍, 이영호, 2011), 대인관계능력과는 부적 상관(이경희, 김봉환, 2010)을, 대인간민 감성과 적대감과 같은 대인관계 증상(최혜연, 민경환, 2007)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부모는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보다 개인내적인 신념, 욕구나 갈등 등이 더 미묘하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

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비교하여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녀는 유형에 상관없이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정과 돌봄이 부족하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김미라, 강지현, 2012; 이현만, 한성희, 1996; Campbell, March, Pierce, Ewing, & Szumowski, 1994; Rey & plapp, 1990). 이로 보아 부모의 돌봄 혹은 애정이라는 양육조건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이 부모-자녀의 관계 맥락에서 양육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서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양육태도와 함께 투입된 경로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 직접효과가 사라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행동을 거쳐 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오지현, 2010), 정서수용태도를 거쳐 남아 자녀의 문제행동(김미라, 강지현, 2012)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앞서 설명한 Eisenberg 등(1998)

의 정서사회화 모델 맥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정서 특성은 양육태도를 거침으로써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부모변인으로 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이를 양육태도라는 행동적 측면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탐색해보았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부모는 자녀 양육 상황이라는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의 목표와 자녀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 스스로 이런 감정을 다룰 수 있는지 능력의 차이에 따라 자녀 양육을 효율적이고 반응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게 된다(Dix, 1991). 부모의 양육변인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초기에 자녀의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부모의 분노감,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양육변인이 강하게 예측한 반면 부모의 순향적 양육행동은 4년 후 이런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나타나, 부모의 사회화 요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Denham, Warkman, Cole, Weissbrod, Kedziora, & Zahn-Waxler, 2000).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enham, Baseett, & Wyatt, 2007; Eisenberg et al., 1998). 아동이 정서를 자신의 목표와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은 개인의 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능감, 인지기능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발달적 성취 중 하나이다(Thompson & Goodman, 2010). 이러한 발달적 성취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다

양한 유형의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발달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는 동안 관계, 문화, 사회적 지지 등 의 많은 과정을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Thompson & Goodman, 2010). 따라서 부모의 정서적 특성과 건강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정서발달 발달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을 양육태도와 관련지어 봄으로써 정서표현양가성이 개인적 특질만이 아닌 부모 자녀 관계 측면에서도 가치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자녀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위한 실제적인 부모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단순히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행동 측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갈등을 비롯한 부모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탐색과 개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후속 연구문제를 남겼다. 첫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의 애정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양육태도를 대표하는 데에 단순한 애정의 수준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관련 척도의 내적 일치도가 다소 낮게 평가되어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 수용, 반응적 행동을 포함하는 지지 차원과 감독, 훈육, 강압적 지시, 요구를 포함하는 통제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나아가 Gottman 등(1996)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상위-정서(meta-emotion)

능력과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과제 해결에 앞서 먼저 과제의 목표와 절차를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과제의 구조를 제공하고, 과제 해결과 관련된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정보는 제시하지 않으며 아동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올바른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했을 때 격려해주는 양육행동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정서 사회화 맥락에 입각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정서에 대한 토론, 정서 표현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시켜(Eisenberg et al., 1998) 측정하는 것도 가치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할 때는 양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표현양가성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억제적인 경향으로 인해 전반적인 정서표현성이 낮고 이와 더불어 정서표현의 일관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이중-처리 모델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로 세분화하여 측정된 연구에서 어머니의 암묵적인 태도가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Sturge-Apple, Rogge, Skibo, Peltz, & Suor, 201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일관성의 요인을 추가하여 통합적으로 연구한다면 부모의 정서 특성이나 자녀의 적응지표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좀 더 풍부한 사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어머니 보고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어머니의 정서발달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도록 난이

도가 있는 게임놀이 과제를 활용하여 실제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간의 관련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관찰 및 보고가 유용하다는 주장도 있지만(오경자 등, 1997),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는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모-아동 간의 상호작용 관찰방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미라, 강지현 (2012).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남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수용태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2803-2820.
- 김준홍, 이영호 (2011). 지각된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 성인자녀의 성차를 고려하여. *놀이치료연구*, 15(3), 15-33.
-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여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달심리학회지:발달*, 27(3), 147-167.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임상*, 21(1), 29-43.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1
- 신주혜 (2015). 한국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주혜, 정윤경 (2014).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71-95.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지현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내담아동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7(1), 33-48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유진, 정은정 (2013).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31-249.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13-128.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하나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표현 및 갈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만, 한성희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 년 정신의학, 7(2), 167-178.
- 정윤경, 박보은 (2010).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11-125.
- 정윤경, 박혜진 (2012).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관련 양육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07-128.
- 조현정, 이승연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33-53.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10). 경험논문: 심박 변이도 분석을 이용한 정서표현양가성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건강*, 15(3), 463-481.
- 하 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 워크샵 교재.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bara.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Campbell, S. B., March C. L., Pierce, E. W., Ewing, L. J., & Szumowski, E. K. (1994). Hard-to manage preschool boys family context and the stability of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301-318.
- Cervantes, C. A., & Seo, M. (2005). Korean mother'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n examination of parenting in a multicultural context. In J. C. Dunsmore (Ed.), *Multicultural exmination of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 Meaning, mechanisms, and methods*. Symposium Conducted an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tlanta, GA.
- Denham, S. A., Bassett, H. H., & Wyatt, T. (2007). The socialization of emotional competence.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614-637.
-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 Zahn-xa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1), 23-45.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Dunn, J., & Brown, J. (1991). Becoming American or English? Talking about the social world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In M. H. Bornstein (Ed.), *Cultural approaches to parenting*

- (pp.155-172). Hillsdale, NJ: Erlbaum.
- Dunsmore, J. C., & Karn, M. (2001). Mother's beliefs about feeling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 117-138.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Emmons, R. A., & Kaiser. (1995). Goal orient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Linking Goals and Affect through the self. In Martin. L. L., Tesser, A. (Ed.). (1996). *Striving and feeling: Interactions among goals, affect, and self-regulation*. Mahwah, NJ: Erlbaum.
- Emmons, R. A., & King. L. A. (1988). Conflict among personal strivings: Immediate and long-term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40-1048.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pp.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King, L. A. (1998).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reading emotions in situations and f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753-762.
- Gottman, J. M. Katz, L.,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 of preliminary da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 268.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ail Psychology bulletin, 29*, 545.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 82-95.
- Petit, G. S., Harrist, A. W., Bates, J. E. & Dodge, K. A. (1991). Family interaction,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subsequent relations with peers at kindergart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83-420.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doi:10.1016/j.dr.2009.11.001
- Sturge-Apple, M. L., Rogge, R. D., Skibo, M. A., Peltz, J. S., & Suor, J. H. (2015). A dual-process approach to the role of mother's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their child in parenting models. *Developmental Psychology, 51*(3), 289-300.
- Thompson, R. A. & Goodman, M. (2010).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I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pp.38-58).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Thompson, R. A., & Meyer, S. (2007).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249-268). New York: Guilford Press.
- Wong, M. S., McElwain, N., & Halbestadt, A. G. (2009). Parent,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mother-and father-reported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452-463. doi: 10.1037/a0015552

1차원고접수 : 2015.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6. 02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9

## Effect of the Mother'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oward Her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injeong Bae

Yoonkyu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relations among mothers' emotional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For these ends, 321 mothers of preschoolers (4~7 years old) completed questionnaires includi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EQ), parenting style (PBI), and Korean-Child Behavior Check List (K-CBCL).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mother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both on parenting attitudes and on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Mothers who experience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ended to be less affectionate and their children tended to have bigger external or internal problems, suggesting that mother's parenting attitude mediates between their attitude toward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children's mental health.

*Key words*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Attitude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